

불법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는 "헤이그 조약"



일본에서도 4 월 1 일부터 헤이그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국경을 초월해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버리면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원래의 거주 국가에 돌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약입니다.
- 거주국에 전 배우자를 남긴 채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귀국 또는 거주 국가인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외무성 HP 에 (정부 광보 · 외무성출처)

양친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살면 아이는 어느 쪽이 양육할 수 있는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불행해져서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어느 국가에서 양육하느냐에 관해 종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로는 마음대로 일본에서 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외국에 살고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도 아이가 출국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돌아갈 수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를 가진 부모는 다른 법률, 문화와 싸우면서 자력으로 헤어진 전 배우자와 자식의 행방을 찾아 관계 국가의 법원에 자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지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헤이그 조약 (국제적인 아동 탈취의 민사 측면에 관한 조약)을 맺음으로써 두 국가의 담당 기관 (중앙 당국)을 통한 국제 협력 방법을 통해 상대국에서 자식을 데려 오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부모의 면회 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약 발효 1 개월, 미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일본에 데리고 온 부모를 돕기 위해 또는 반환 신청과 면회 교류의 청구를 받은 부모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도쿄의 3 변호사회는 전문 변호사를 소개하는 공통전화 (0570-783-563)를 설치합니다.

◆재외 공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은 헤이그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 전 배우자가 무단으로 자식을 일본에서 해외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일본으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고 싶습디다만 다시 원래의 거주 국가로 돌아가면 체포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 DV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있습니까?
- 가정 내에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 재외 공관은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참고/헤이그조약팸플렛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33409.pdf>

유치원 상급반 아동인 자녀에게 홍역 풍진 혼합 백신 (2 종)의 접종을 권장합니다



건강증진센터
(049-252-3771)에서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올해 유치원 상급반이
되는 어린이에게 홍역
풍진 혼합 백신 (2 기)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권합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되면 당황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부모가 있습니다만 아이의
컨디션이 좋을 때를 체크해 빨리 받아 드립니다

★평성 26 년도의대상자 : 평성 20 년 4 월 2 일~
평성 21 년 4 월 1 일에 태어난 아이

★접종기간 : 평성 2년 4월 1일~평성 27년 3월 31 일

**임시복지급부금 · 육아세대
임시특례급부금 지급 뉴스입니다**

4 월부터 소비세가 인상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임시복지급부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중인 세대에게는 「육아세대임시
특례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요건 및 접수 기간 등은 앞으로
발표되므로 시마치 광보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문의 :
복지 · 육아급부금실 급부금 콜센터
☎049-252-8050

**아동부양수당액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자서 자녀
(18 세가 된 후의 3 월 31 일까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금이긴 하지만 수당액이
바뀐것은 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의 고저에
맞추어 수당도 슬라
이드되었습니다만
과거수년동안수당액
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입니다.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새 시설「에코파」가 6 월에 오픈**

여열이용시설 「에코파」는 후지미노시,
미요시 마치 환경 센터 (평성 28 년 3 월에
완공 예정)의 소각로에서 생긴 열을 이용한
시설입니다. 단지 지금 6 월 오픈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내용으로는 건강증진용 수영장,
목욕탕, 홀, 다목적실, 일본식 타타미방,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위치는 카미후쿠오
카 청소 센터 옆에 있습니다.

●문의 : 광역쓰레기처리시설 건설실
☎049-262-9027

육아옹원단「패밀리서포트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서 보도 엮힌 슬픈 뉴스가 흘러했지만 이처럼 지역에서 육아를지지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생각하면 유감입니다. 「가족 지원 센터」는 육아의 도움을하고 싶은
분 (제공 회원)에게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 (의뢰 회원)이 회원이되어 지역에서 육아를 돕는
단체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회원등록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 :
후지미시패밀리서포트센터 ☎049-251-3337
후지미노시패밀리서포트센터 ☎049-262-1135
미요시마치패밀리서포트센터 ☎049-258-0075

■이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소, 유치원등에의 배웅 마중이
- 학교, 방과후 아동클럽 배웅 마중
- 과외의 배웅 마중이나 아프고 난 후의 아동
- 보호자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 이용요금 1 시간 7 0 0 엔에서 8 0 0 엔
- 이용시간 오전 6 시~오후 10 시